

전남한우 전국 경진대회 종합우승

완도 박지훈 농가 대통령상 등

수상 휩쓸어... 전국 최고 입증

한우능력평가 10위내 3마리 입상

전남 한우가 전국 최고였다. 완도 박지훈 농가의 한우가 최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전국 한우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등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각종 대회에서 전남 한우가 입상하는 등 그 우수성이 입증됐다.

지난 17일 열린 전국 한우경진대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경제지주가 주관했다. 시·도별 대회를 거쳐 선발된 우량한우를 출품, 한우 개량 수준 및 성과를 평가해 부문별로 총 15점을 시상했다.

전남은 지난 9월 열린 제38회 전남 으뜸한우 경진대회에서 암송아지와 미경산우, 번식 1:2:3부

등 부문별 최우수축으로 선발된 5마리를 출품했다. 그 결과 전남 대회에서 종합 챔피언상을 수상한 완도 박지훈 농가의 출품축이 대회 최고상인 대통령상(그랜드 챔피언 2000만원)을 수상했다. 또 농촌진흥청장상(우수상 200만원)에 강진 김아영 농가, 농협중앙회장상(우수상 200만원)에 화순 김송희 농가, 한국종축개량협회장상(장려상 100만원)에 무안 박성수 농가가 이름을 올렸다.

박지훈 농가는 발육과 골격이 우수하고, 성장 발달을 가능할 수 있는 십자부고 및 몸과 다리의 균형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밀식사육을 지양하고,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전남도 송이지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등 체계적인 계량에 나선 것도 한몫했다.

또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를 위해 지난 10월 충북 음성에서 열린 제25회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는 전국에서 292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상위

10위 안에 전남산 한우 3마리가 입상해 탁월함을 입증했다. 수상 농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장상 신안 윤성숙 농가,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상 고흥 박태화 농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상 영암 서승민 농가다.

전남 입상 한우는 도살한 가축의 가죽, 머리, 발목, 내장 따위를 떼어 낸 나머지 몸뚱이의 체중인 도체중이 약 600kg으로 전국 평균(414kg)의 1.4배, 경매가격은 kg당 4만원으로 일반 거세우(2만 1000원)의 1.9배에 달해 마리당 약 2500만원에 판매됐다. 지금까지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전남도는 대통령상을 5회 수상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전국에 전남 한우의 명성을 떨치고 있다. 대통령상 수상 농가는 15회 영암 서승민 농가, 19회 곡성 박희애 농가, 22회 고흥 박태화 농가, 23회 영암 김용복 농가, 24회 무안 박성순 농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관광재단 경북서 전남 매력 알렸다

'경주 IN 두레' 행사 참여

전남관광재단이 오는 12월 사업성과설명회를 통해 청년과 창업, 두레를 잇는 행사를 개최한다. 전남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식음 및 체험 상품을 전남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재단은 이에 앞서 지난 13일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경주 IN 두레' 행사에 참여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식음·체험 상품을 소개하는 플라마켓을 열었다.

재단이 주관한 홍보부스에서는 도내 8개 지역 17개 주민사업체 물품을 전시·홍보했다. 특히 전남 주민사업체 11곳은 직접 부스를 운영해 경북지역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며 판매까지 연결했다.

우수 판매 제품은 ▲남도의 상징성을 담은 여수와 맥주 ▲보성 행복담긴 첫물차(녹차) ▲담양 죽로차와 수제 맥주 등은 상품 경쟁력을 확인

했다. 전남 보성 녹차를 활용한 ▲국내 1호 발마 사자사 김수자씨네 꽃게어 제품 또한 인기를 끌었다. 이 밖에도 ▲담양 죽녹원을 상징하는 댓잎차, 댓잎 맥주 등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상품들이 돋보였다. 경주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한 만큼 전남 지역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주민사업체 판로 개척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관광두레센터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총 42팀의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들이 참여했다. 전남 외에도 대구, 경북, 제주 등 다양한 지역의 주민사업체들이 모여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이건철 전남관광재단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경북 관광두레와의 네트워크 확대는 물론, 맛과 멋의 도시 전남의 매력이 충분히 알려졌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 경북·전남 관광두레의 콜라보 상품까지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빈집 정비...' 성과감사

감사원 '자체감사 콘테스트' 대상

전남도가 지난 18일 2021~2022년 전남도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빈집 정비 및 활용 실태' 성과감사가 감사원 주관 2022년 '자체감사 콘테스트'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사진>

'빈집 정비 및 활용 실태' 성과감사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보편성과 적시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5개월에 걸쳐 현장을 누비며 빈집 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빈집을 자산으로 인식하며 그 활용 방안까지 제시한 점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이 주관하는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자체감사기구의 우수 감사사례를 발굴 공유하고 적정행정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해 콘테스트에는 지자체 등 전국 300여 공공기관이 경쟁했다.

감사원은 5월부터 예비심사, 전문가 심사, 발표 심사 등을 거쳐 지난 10월 감사원 감사위원회의결로 전남도의 '빈집 정비 및 활용 실태' 성과

감사를 올해의 대상 감사 사항으로 선정했다. '빈집 정비 및 활용 실태'가 최고 감사 사항으로 선정됨으로써 대상 수상과 함께 소속 직원은 개인표창과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받게 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영산강 삼백리 자전거길 명품화 가속페달

전남도, 도로정비·인프라 구축

전남도가 영산강 삼백리 자전거길을 지역 대표 명품 코스로 조성하기 위해 전반적 도로정비와 인프라 구축, 영산강 권역의 관광자원 연계 등을 위한 용역에 나섰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코로나 대응으로 자전거가 안전한 실의 운동으로 주목받으면서 그 수요가 급증하고, 국토 중주 자전거 여행객이 부쩍 늘었다. 하지만 2012년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영산강 자전거길은 그동안 유지·보수가 되지 않아 훼손된 도로와 단절된 구간이 많고, 구간 내 편의시설도 부족해 자전거 이용객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날 영산강권 지자체인 광

주, 목포, 나주, 담양, 무안,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산강 자전거길 조성 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향후 개발 방향과 재원 마련 등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영산강권역 발전을 위해 각 지자체가 소통하는 장으로 진행됐다. 이번 용역으로 기존 자전거 이용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역별 관광 연계상품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호규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자전거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벗어나 취미와 여행, 건강관리의 새로운 콘텐츠로 자리잡았다"며 "영산강 자전거길 이 전남을 대표하는 명품브랜드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산림자원연구원 "글로벌 산림과학융복합기술 허브 도약"

설립 100주년 기념행사 비전 발표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 18일 김치유광장에서 '전남 산림연구 100년 기념행사'를 열어 '글로벌 산림과학융복합기술 실현'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지역 대학과 산림자원 산업화 공동연구 협약도 했다.

기념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신정훈 국회의원, 윤병태 나주시장, 신우철 완도군수, 최선국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장과 도의원, 전남대·순천대·목포대·조선대·동신대 총장과 부총장, 임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과보고와 기념사, 축사, 산림자원 연

구의 미래 100년을 위한 지역대학과의 디지털 업무협약식, 비전선포 손으로 진행됐다. 부대행사로 탄소 흡수력이 뛰어난 미래수종으로 각광받는 동백나무를 식수했으며 '연구소의 과거와 현재' 사진 전시도 함께 이뤄졌다.

비전선포식에서는 미래 주인공인 어린이와 대학생, 청년과 여성 임업인 등 12명의 각계 대표가 참여해 '숲과 함께하는 전남의 미래, 글로벌 산림과학융복합기술 실현'이란 새로운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지역 5개 대학과의 업무협약에서는 전남 비교육 위 산림자원 산업화 공동연구, 산림부문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연구, 산림과학기술 과제

발굴 및 산학연 공동연구 등 '산림자원 산업화 공동연구'를 다짐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말부터 직원들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이뤄진 전담반(T/F)을 구성해 지난 100년의 역사기록을 직접 수집해 만든 '전남 산림자원연구 100년사' 백서 발간도 앞두고 있다.

김 지사는 "전남 산림연구의 지난 100년 발자취가 새로운 미래 산림 역사를 만드는 데 훌륭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미래 100년을 이끌 글로벌 산림과학융복합기술의 허브로서, 대한민국 산림연구와 산림산업의 대도약에 앞장서기 위한 힘찬 여정에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화순 백신·바이오산업 온택트 투자설명회

전남도, 기업 등 200여명과 소통

전남도가 지난 17일 백신·바이오 잠재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전남의 투자 환경과 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온택트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설명회는 약 1시간 동안 전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 으뜸전남투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설명회에는 백신·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전남도와 화순군은 백신·바이오산업의 입지 여건과 투자 매력 등을 알리며 투자기업의 성공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전남 바이오산업진흥원 생물 의약연구센터는 백신·바이오산업 개발 및 생산 지원, 창업보육사업 등을 소개해 기업 관계자의 궁

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줬다.

전남에서 창업해 코스닥 상장 성과를 거둔 ㈜박셀바이오(2010년 설립), ㈜바이오에프디앤씨(2005년 설립) 기업 관계자도 직접 참여해 바이오 기업 성공사례를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이귀동 전남도 투자유치과장은 "전남은 2010년 전국 유일의 백신산업특구로 화순을 지정해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등 백신·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클러스터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투자 기업이 성공하도록 백신·바이오산업 전주기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6월 해남 해상풍력 산업에 이어 이날 화순 백신·바이오산업 분야에 이어 오는 12월에 광양에서 수소산업 분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h1>토지 매매 (담양)(장성)</h1>		<h2>경매교육 [특수 전문반]</h2> 기초반, 중급반
<p>▶ 담양 프로방스 앞 (7,500평)</p> <p>■ 임야 : 7,500평</p> <p>■ 1차 허가 완료, 개발토지, 최고 위치</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p>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p>
<p>① 담양 창평면 - 9,000평 (계획관리)</p> <p>② 담양 무정면 - 1,200평 (1종주거지역)</p> <p>③ 장성읍 상오리 (장성댐) 전원주택 (150평)</p> <p>④ 장성읍 야은리 (황룡강면) 전원주택지 (200평)</p> <p>⑤ 장성읍 야은리 전원주택 2층 - 2억3천</p>		▶ 경매 물건 추천 ◀
		<p>서구궁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6천</p> <p>광산구 수완동(윤슬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p> <p>북구 삼각동 (어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2천</p> <p>북구 신안동 (공장) ▶ 감정가 13억 → 최저가9억2천</p> <p>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16억</p> <p>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 → 최저가 2억8천</p> <p>영암군 심호읍 (숙박시설) ▶ 감정가 20억 → 최저가 7억</p> <p>장성읍 안평리 (농지)▶감정가 17억 → 최저가 12억</p>
<h1>010-6670-9800</h1>		<h1>010-2614-9801</h1>